

KLSI

ISSUE PAPER

제 131 호
2020-12호
(2020.06.15)

www.klsi.org

코로나 위기와 5월 고용동향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sli.org/

〈요 약〉

- 통계청이 2020년 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9만 명 감소’, ‘3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87만 명임.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 증가한 것은, 5월 중순부터 ① 물리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②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고, ③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의 정책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럼에도 2월 대비 5월 취업자 수가 87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줌.
- 실업자가 4월 105만 명에서 5월 124만 명으로 19만 명 증가한 것은, 3-4월에는 구직활동을 포기했던 비경제활동인구들이 5월 들어 구직활동에 나섰다 때문임.
-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었음. 그러나 점차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 생산직과 사무직, 상용직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일시휴직자는 2020년 3월 161만 명, 4월 149만 명, 5월 102만 명으로 세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전체 취업자의 주당 총노동시간은 2020년 2월 10억 9,800만 시간에서 5월 10억 3,600만 시간으로 6,200만 시간(-5.6%) 감소했음. 이를 주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일자리 155만 개가 사라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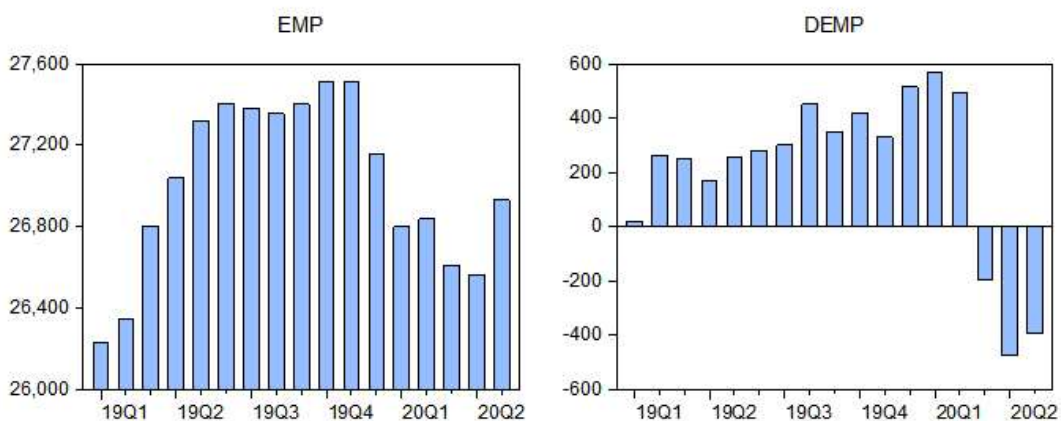
코로나 위기와 5월 고용동향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9만 명이 아닌 87만 명

- 통계청은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때 ‘전월(前月) 대비’보다 ‘전년 동월(前年同月) 대비’ 지표를 사용함. 이는 계절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임.
- 예컨대 2020년 3월 취업자는 2,66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 명 감소했고, 4월 취업자는 2,65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8만 명 감소했으며, 5월 취업자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 명 감소했음. 대다수 언론은 기사 제목으로 ‘취업자 39만 명 감소’, ‘3개월 연속 감소’ 로 보도함(〈그림1〉 참조).

〈그림1〉 연도별 월별 취업자 수와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
(2019.1-2020.5, 원계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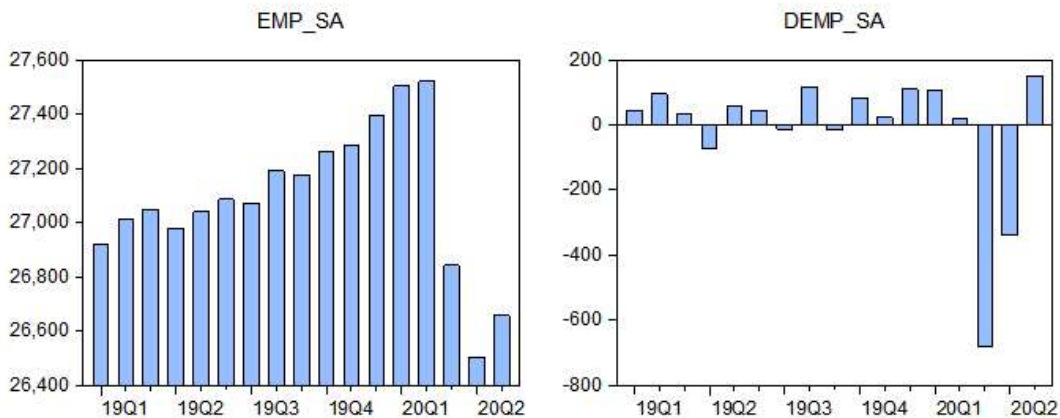


- 고용지표는 계절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그밖에 경기변동, 불규칙(?)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됨. 요즈음처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일

때는 ‘전년 동월 대비’보다 ‘전월 대비’ 또는 ‘2월 대비’ 자료가 적합함.

-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020년 2월 15일 28명, 3월 15일 8,162명, 4월 15일 1만 591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각각 0명, 75명, 225명임. 따라서 2월까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전(前), 3월부터는 코로나 위기상황 후(後)로 분류할 수 있음.
- 통계청은 계절 요인을 통제한 계절조정 자료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때는 ①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하면서 ② 2월 대비 3월, 4월, 5월 고용지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하는 게 필요함.
- 2020년 2월 계절조정 취업자는 2,752만 명, 3월 2,684만 명, 4월 2,650만 명, 5월 2,666만 명임. 2월 대비 3월 취업자는 68만 명 감소했고, 3월 대비 4월 취업자는 34만 명 감소했으며, 4월 대비 5월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했음.
- 이에 따라 코로나 위기상황 전(前)인 2월 대비 4월 취업자는 102만 명 감소했고, 5월 취업자는 87만 명 감소했음(<그림2>와 <부표1> 참조).

〈그림2〉 연도별 월별 취업자 수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
(2019.1-2020.5, 계절조정,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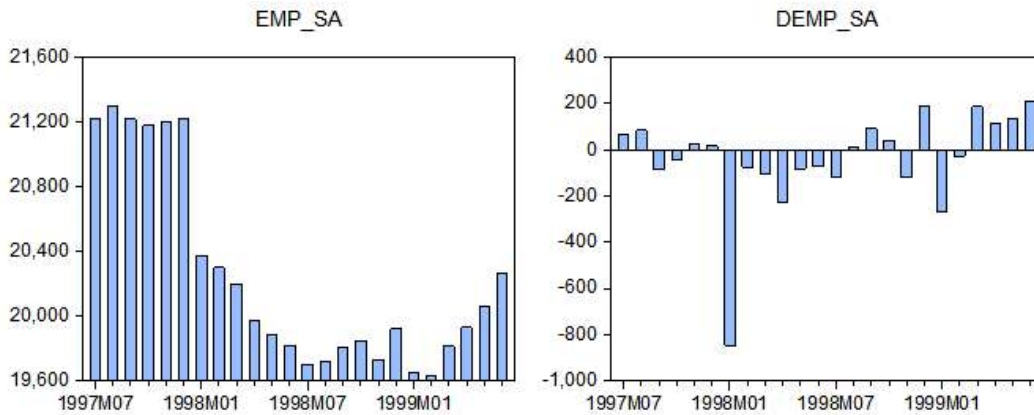


-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 명, 4월에 34만 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 명으로 증가한 것은, 5월 중순부터 ① 물리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②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었으며, ③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정책 효과에도 2월 대비 5월 취업자 수가 87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 갈 것임을 말해줌.

2. 코로나 위기 세 달 취업자 감소(-87만 명)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동안 취업자 감소(-25만 명) 폭은 크게 넘어서지만, 외환위기 첫 세 달 취업자 감소(-103만 명) 폭에 못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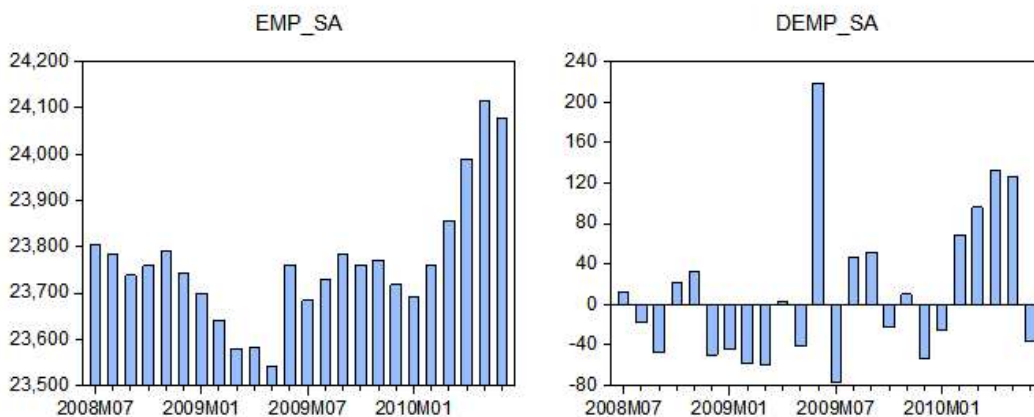
- 외환위기 때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1997년 12월 2,122만 명에서 1999년 2월 1,963만 명까지 14개월 동안 160만 명 감소했음.
- 취업자 수가 급감한 1998년 1월에는 2,038만 명으로 한 달 사이 85만 명 감소했고, 2월에는 2,030만 명으로 8만 명 감소했으며, 3월에는 2,020만 명으로 다시 10만 명 감소했음. 첫 세 달 감소한 취업자 수는 103만 명임(<그림3>과 <부표2> 참조).

<그림3> 외환위기 때 취업자 수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 (1997.7-1999.6, 계절조정, 단위: 천명)



-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8년 11월 2,379만 명에서 2009년 5월 2,354만 명까지 6개월 동안 취업자가 25만 명 감소했음(<그림4>와 <부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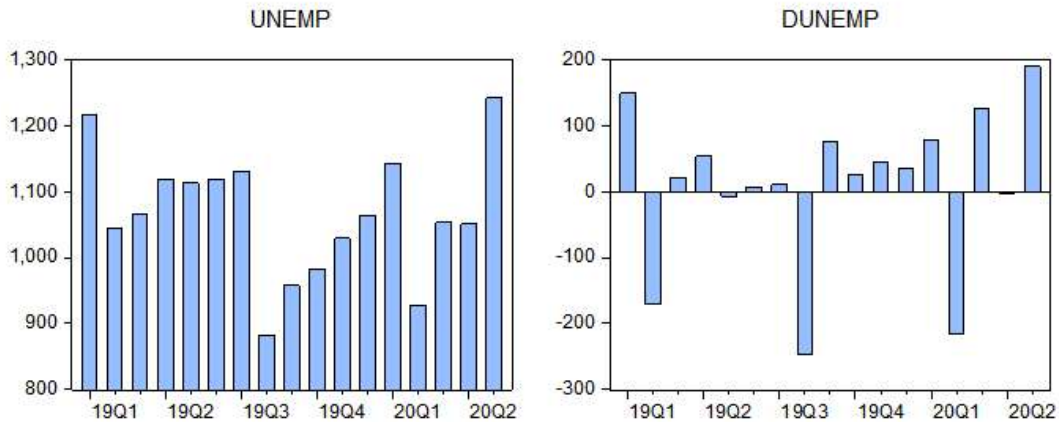
<그림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취업자 수와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 추이 (2008.7-2010.6, 계절조정, 단위: 천명)



3. 코로나 위기 세 달 실업자는 31만 명 증가했고 무직자는 92만 명 증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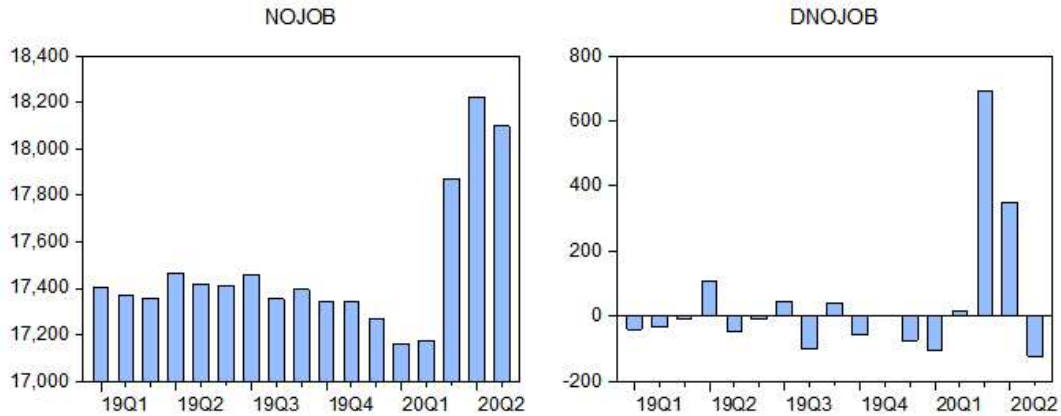
- 2020년 2월 계절조정 실업자는 93만 명, 3월과 4월 실업자는 105만 명, 5월 실업자는 124만 명임. 2월 대비 3-4월 실업자는 12만 명 증가했고, 5월 실업자는 31만 명 증가했음(〈그림5〉 참조).
- 취업자는 87만 명 감소했는데 실업자가 31만 명 증가한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실업자 추이보다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무직자 추이를 살펴보는 게 필요함.

〈그림5〉 연도별 월별 실업자 수와 전월 대비 실업자 증감 추이
(2019.1-2020.5, 계절조정, 단위: 천명)



- 2020년 2월 무직자는 1,718만 명, 3월 1,787만 명, 4월 1,822만 명, 5월 1,810만 명임. 즉 2020년 2월 대비 3월 무직자는 69만 명 증가했고, 3월 대비 4월 무직자는 35만 명 증가했으며, 4월 대비 5월 무직자는 12만 명 감소했음.
- 이에 따라 코로나 위기 전(前)인 2월 대비 4월 무직자는 105만 명 증가했고, 2월 대비 5월 무직자는 92만 명 증가했음(〈그림6〉 참조).

〈그림6〉 연도별 월별 무직자 수와 전월 대비 무직자 증감 추이
(2019.1-2020.5, 계절조정, 단위: 천명)



- 무직자는 2020년 4월 1,822만 명에서 5월 1,810만 명으로 12만 명 감소했는데, 실업자는 105만 명에서 124만 명으로 19만 명 증가한 것은, 3-4월에는 구직활동을 포기했던 비경제활동인구들이 5월 들어 구직활동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4.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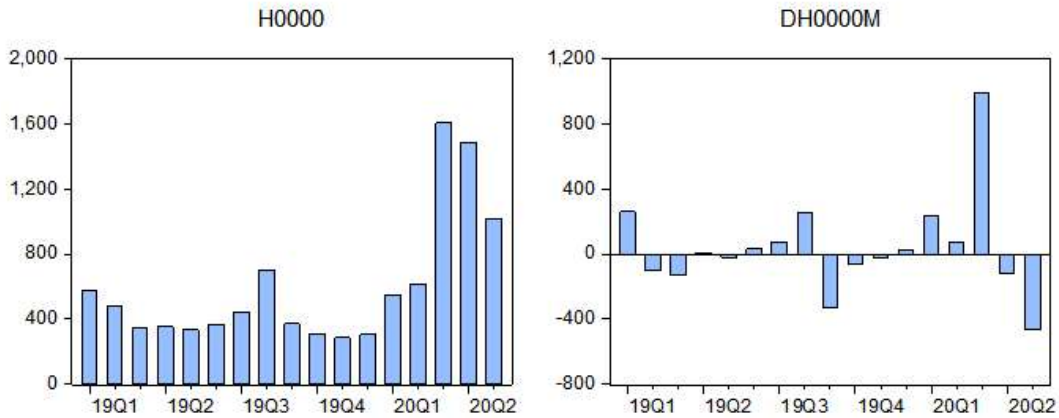
-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 수는 여성(-51만 명)이 남성(-35만 명)보다 많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만 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30대(-19만 명), 50대(-17만 명), 40대(-16만 명), 청년(15-29세, -15만 명) 순임. 모든 연령층이 타격을 받음.
 - 4월 대비 5월 취업자 수는 남성(5만 명)과 여성(10만 명) 모두 증가하고, 연령별로는 청년(6만 명)과 60세 이상(5만 명), 50대(3만 명) 모두 증가했음. 그러나 30대(-1만 명)와 40대(-4천 명)는 5월에도 감소했음(〈부표1〉 참조).
- 종사상 지위별로는 노동자(-64만 명)와 비임금근로자(-19만 명) 모두 감소했음. 임시직(-35만 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상용직(-20만 명), 고용주(-10만 명), 일용직(-9만 명), 무급가족 종사자(-7만 명), 자영업자(-2만 명) 순으로 감소했음.
 - 4월 대비 5월 취업자 수에서 임금노동자(17만 명)는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4만 명)는 감소했음(〈부표1〉 참조).

- 직업별로는 서비스직(-21만 명), 전문가(-16만 명), 단순노무직(-13만 명)이 가장 많이 감소했음. 취업자가 증가한 직업은 관리자(2만 명)가 유일하며, 농림어업 숙련직(-12만 명)과 기능직(-11만 명), 사무직(-10만 명)도 많이 감소했음.
- 코로나 위기로 가장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전문가는 5월 들어 취업자 수가 일부 개선되었음. 그러나 생산직과 사무직, 농림어업 숙련직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부표1〉 참조).
- 코로나 위기로 가장 집중적인 타격을 받은 산업은 개인서비스업(-22만 명)과 사회서비스업(-21만 명)임.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숙박,음식점업(-15만 명)과 농림어업(-12만 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8만 명), 제조업(-8만 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8만 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7만 명), 건설업(-6만 명), 교육서비스업(-5만 명) 순으로 많이 감소했음.
- 5월 들어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 농림어업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부표1〉 참조).
- 이상을 종합하면 코로나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점차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 생산직과 사무직, 비임금근로자로 확대되고 있음.

5. 일시휴직은 2020년 3월 161만 명, 4월 149만 명, 5월 102만 명으로 세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

- 통계청은 주요 고용지표와 성·연령·종사상지위·산업·직업별 취업자만 계절조정 자료를 제공하고, 일시휴직 등은 계절조정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일시휴직자를 구한 뒤 전월 또는 2월 대비 증감을 살펴봄.
- 취업자 중 일시휴직은 2020년 2월 62만 명에서 3월 161만 명으로 99만 명 증가했음. 4월에는 149만 명으로 한 달 사이 12만 명 감소했고, 5월에는 102만 명으로 다시 47만 명 감소했음(〈그림7〉 참조).
- 참고로 1982년 7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일시휴직 최대치는 2014년 8월 88만 명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없음.

〈그림7〉 연도별 월별 일시휴직 수와 전월 대비 일시휴직 증감 추이
(2019.1-2020.5, 원계열,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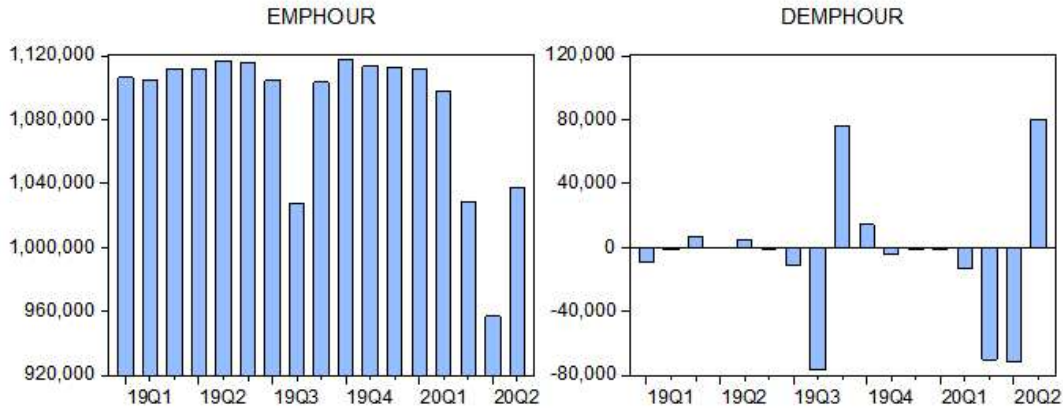


- 2020년 2월 대비 5월에 증가한 일시휴직자는 여성(22만 명)이 남성(18만 명)보다 많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2만 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30대(8만 명), 청년(8만 명), 40대(7만 명), 50대(5만 명) 순임(〈부표3〉 참조).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19만 명), 상용직(10만 명), 자영업자(9만 명) 순으로 많고, 직업별로는 전문가(8만 명), 단순노무직(8만 명), 서비스직(6만 명) 순임. 산업대분류 기준으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0만 명)과 제조업(7만 명)이 가장 많음.

6. 코로나 위기 세 달 째 전체 취업자의 총노동시간은 5.6% 감소했고, 주40시간 일자리 155만 개가 사라졌음.

-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주당 총노동시간(계절조정 취업자수×노동시간)은 2020년 2월 10억 9,800만 시간에서 3월 10억 2,700만 시간으로 7,100만 시간(-6.4%) 감소했고, 4월에는 9억 5,800만 시간으로 다시 6,900만 시간(-6.8%) 감소했음. 5월에는 10억 3,600만 시간으로 한 달 사이 7,800만 시간(8.1%) 증가했음(〈그림8〉과 〈부표4〉 참조).

〈그림8〉 연도별 월별 총노동시간과 전월 대비 총노동시간 증감 추이
(2019.1-2020.5, 계절조정, 단위: 주당 천시간)



- 2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 위기 세 달 동안 감소한 총노동시간은 주당 6,200만 시간 (-5.6%)임. 이를 주40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일자리 155만 개가 사라졌음(〈부표4〉 참조).
- 남성은 총노동시간이 2,900만 시간(-4.4%) 감소했고, 주40시간 일자리가 72만개 사라졌음. 여성은 3,200만 시간(-7.4%) 감소했고, 주40시간 일자리가 81만개 사라졌음.
- 총노동시간은 청년층(15-29세, -8.1%), 30대(-6.9%), 고령층(60세 이상, -5.5%) 순으로 많이 감소했음. 주40시간 기준으로 30대 일자리는 40만 개 사라졌고, 40대는 36만 개, 50대는 33만 개, 청년층은 30만 개, 고령층은 25만 개 사라졌음.
- 총노동시간은 임시직(-14.1%), 일용직(-11.6%), 고용주(-8.7%) 순으로 많이 감소했음. 주40시간 기준으로 상용직 일자리는 67만 개 사라졌고, 임시직은 54만 개, 고용주는 16만 개, 일용직은 12만 개 사라졌음.
- 총노동시간은 서비스직(-10.0%), 기능직(-8.8%), 단순노무직(-8.2%) 순으로 많이 감소했음. 주40시간 기준으로 서비스직 일자리가 34만개 사라졌음.
- 총노동시간은 개인서비스업(-9.9%), 생산자서비스업(-7.0%), 제조업(-5.7%) 순으로 많이 감소했음. 주40시간 기준 일자리도 개인서비스업 44만 개, 생산자서비스업 28만 개, 제조업 27만 개 사라졌음.

〈부표1〉 월별 계절조정 취업자 수와 증감(단위: 천명)

	취업자수(계절조정,천명)				증감(전월대비,천명)			증감(2월대비,천명)	
	2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2-4월	2-5월
전체	27,522	26,842	26,504	26,657	-680	-338	153	-1,018	-865
남성	15,618	15,375	15,217	15,265	-243	-158	48	-401	-353
여성	11,904	11,467	11,287	11,391	-437	-180	104	-617	-513
(15-64세)	24,645	24,169	23,895	23,981	-476	-274	86	-750	-664
15-29세	3,888	3,731	3,679	3,734	-157	-52	55	-209	-154
30-39세	5,537	5,429	5,361	5,350	-108	-68	-11	-176	-187
40-49세	6,484	6,419	6,326	6,322	-65	-93	-4	-158	-162
50-59세	6,470	6,354	6,278	6,304	-116	-76	26	-192	-166
60세이상	5,296	4,918	4,860	4,913	-378	-58	53	-436	-383
(노동자)	20,722	20,219	19,914	20,084	-503	-305	170	-808	-638
상용	14,631	14,558	14,415	14,432	-73	-143	17	-216	-199
임시	4,723	4,364	4,271	4,370	-359	-93	99	-452	-353
일용	1,368	1,297	1,229	1,282	-71	-68	53	-139	-86
(비임금근로자)	6,744	6,643	6,594	6,558	-101	-49	-36	-150	-186
고용주	1,472	1,398	1,391	1,372	-74	-7	-19	-81	-100
자영업자	4,174	4,164	4,155	4,153	-10	-9	-2	-19	-21
무급가족 종사자	1,099	1,081	1,048	1,032	-18	-33	-16	-51	-67
1 관리자	377	385	401	401	8	16		24	24
2 전문가	5,632	5,458	5,413	5,473	-174	-45	60	-219	-159
3 사무직	4,744	4,689	4,704	4,644	-55	15	-60	-40	-100
4 서비스직	3,227	3,075	2,982	3,020	-152	-93	38	-245	-207
5 판매직	2,953	2,901	2,923	2,950	-52	22	27	-30	-3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66	1,473	1,374	1,348	7	-99	-26	-92	-118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2,371	2,365	2,284	2,264	-6	-81	-20	-87	-107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3,037	2,993	2,964	2,959	-44	-29	-5	-73	-78
9 단순노무 종사자	3,724	3,533	3,474	3,592	-191	-59	118	-250	-132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1〉 월별 계절조정 취업자 수와 증감(계속, 단위: 천명)

	취업자수(계절조정,천명)				증감(전월대비,천명)			증감(2월대비,천명)	
	2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2-4월	2-5월
전체	27,522	26,842	26,504	26,657	-680	-338	153	-1,018	-865
A 농림어업	1,529	1,533	1,425	1,406	4	-108	-19	-104	-123
B 광업	14	16	15	13	2	-1	-2	1	-1
C 제조업	4,454	4,422	4,397	4,374	-32	-25	-23	-57	-80
D 전기가스증기공기	77	72	65	72	-5	-7	7	-12	-5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43	146	149	149	3	3	-	6	6
F 건설업	2,018	2,008	1,940	1,957	-10	-68	17	-78	-61
(생산자서비스업)	3,872	3,775	3,771	3,748	-97	-4	-23	-101	-124
K 금융보험업	796	785	793	790	-11	8	-3	-3	-6
L 부동산업	548	532	525	520	-16	-7	-5	-23	-28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185	1,132	1,144	1,151	-53	12	7	-41	-34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343	1,326	1,309	1,287	-17	-17	-22	-34	-56
(유통서비스업)	5,916	5,857	5,851	5,875	-59	-6	24	-65	-41
G 도매소매업	3,560	3,535	3,549	3,540	-25	14	-9	-11	-20
H 운수창고업	1,507	1,476	1,450	1,471	-31	-26	21	-57	-36
J 정보통신업	849	846	852	864	-3	6	12	3	15
(개인서비스업)	4,125	3,954	3,812	3,904	-171	-142	92	-313	-221
I 숙박음식점업	2,285	2,178	2,089	2,136	-107	-89	47	-196	-149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	516	481	487	509	-35	6	22	-29	-7
S 협회단체수리기타	1,229	1,204	1,147	1,163	-25	-57	16	-82	-66
T 가구내고용활동 등	95	91	89	96	-4	-2	7	-6	1
(사회서비스업)	5,393	5,104	5,083	5,184	-289	-21	101	-310	-209
O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129	1,039	1,053	1,052	-90	14	-1	-76	-77
P 교육서비스업	1,862	1,780	1,758	1,809	-82	-22	51	-104	-53
Q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2,385	2,268	2,254	2,303	-117	-14	49	-131	-82
U 국제 및 외국기관	17	17	18	20	0	1	2	1	3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2〉 금융위기 때 취업자 감소와 비교(계절조정, 단위: 천명)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위기		
연월	취업자	전월증감	연월	취업자	전월증감	연월	취업자	전월증감
1997.07	21,219	69	2008.07	23,803	12	2019.01	26,919	43
1997.08	21,303	84	2008.08	23,785	-18	2019.02	27,015	96
1997.09	21,220	-83	2008.09	23,738	-47	2019.03	27,050	35
1997.10	21,180	-40	2008.10	23,759	21	2019.04	26,979	-71
1997.11	21,204	24	2008.11	23,792	33	2019.05	27,040	61
1997.12	21,221	17	2008.12	23,742	-50	2019.06	27,085	45
1998.01	20,373	-848	2009.01	23,698	-44	2019.07	27,073	-12
1998.02	20,298	-75	2009.02	23,640	-58	2019.08	27,190	117
1998.03	20,196	-102	2009.03	23,580	-60	2019.09	27,177	-13
1998.04	19,970	-226	2009.04	23,583	3	2019.10	27,261	84
1998.05	19,887	-83	2009.05	23,542	-41	2019.11	27,284	23
1998.06	19,815	-72	2009.06	23,761	219	2019.12	27,395	111
1998.07	19,699	-116	2009.07	23,684	-77	2020.01	27,503	108
1998.08	19,714	15	2009.08	23,730	46	2020.02	27,522	19
1998.09	19,807	93	2009.09	23,782	52	2020.03	26,842	-680
1998.10	19,849	42	2009.10	23,760	-22	2020.04	26,504	-338
1998.11	19,729	-120	2009.11	23,770	10	2020.05	26,657	153
1998.12	19,920	191	2009.12	23,717	-53			
1999.01	19,653	-267	2010.01	23,692	-25			
1999.02	19,626	-27	2010.02	23,761	69			
1999.03	19,813	187	2010.03	23,857	96			
1999.04	19,928	115	2010.04	23,989	132			
1999.05	20,060	132	2010.05	24,115	126			
1999.06	20,268	208	2010.06	24,079	-36			
첫2개월		-923	첫2개월		-94	첫2개월		-1,018
첫3개월		-1,025	첫3개월		-152	첫3개월		-865
감소기간	14개월	-1,595	감소기간	6개월	-250	감소기간	?	?

자료: 통계청 KOSIS

〈부표3〉 월별 일시휴직자 수와 증감(단위: 천명)

	일시휴직자수(원계열,천명)				증감(전월대비,천명)			증감(2월대비,천명)	
	2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2-4월	2-5월
전체	618	1,607	1,485	1,020	989	-122	-465	867	402
남성	230	559	570	413	329	11	-157	339	183
여성	388	1,048	915	607	660	-133	-308	527	219
(15-64세)	508	1,148	1,058	813	640	-90	-244	550	306
15-29세	30	152	150	109	122	-2	-40	120	79
30-39세	169	309	298	253	140	-10	-46	130	84
40-49세	124	291	252	192	167	-39	-61	128	68
50-59세	136	267	257	184	130	-10	-73	121	48
60세이상	159	588	527	282	429	-61	-245	369	124
(노동자)	512	1,217	1,156	811	705	-61	-345	644	299
상용	345	497	503	446	151	6	-57	157	101
임시	163	710	646	355	547	-64	-291	483	192
일용	4	10	8	10	6	-2	2	4	6
(비임금근로자)	106	390	329	209	284	-61	-120	223	103
고용주	15	76	51	28	61	-25	-23	36	13
자영업자	91	314	278	181	222	-36	-97	187	90
무급가족 종사자									
1 관리자	3	4	7	6	1	3	-2	5	3
2 전문가	192	443	368	271	251	-75	-97	176	79
3 사무직	87	152	166	155	66	13	-11	79	68
4 서비스직	85	271	214	142	186	-56	-73	129	57
5 판매직	31	122	109	73	91	-13	-36	77	41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4	12	14	9	-2	2	-5	1	-4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31	70	75	70	39	5	-5	43	39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63	124	135	106	61	11	-29	72	43
9 단순노무 종사자	113	409	397	189	296	-12	-208	284	7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부표3〉 월별 일시휴직자 수와 증감(계속, 단위: 천명)

	일시휴직자수(원계열, 천명)				증감(전월대비, 천명)			증감(2월대비, 천명)	
	2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2-4월	2-5월
전체	618	1,607	1,485	1,020	989	-122	-465	867	402
A 농림어업	16	14	13	13	-2	-1	0	-3	-3
B 광업				0	0	0	0	0	0
C 제조업	46	92	126	117	46	34	-9	80	71
D 전기가스증기공기	2	2	2	0	0	0	-2	0	-2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	3	3	3	2	-1	0	2	2
F 건설업	44	59	54	44	15	-5	-10	10	0
(생산자서비스업)	54	120	132	125	66	11	-7	77	71
K 금융보험업	21	29	28	28	8	0	-1	8	7
L 부동산업		9	7	2	9	-2	-5	7	2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	25	31	39	10	6	8	17	24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9	58	65	56	39	7	-9	46	37
(유통서비스업)	80	217	213	183	137	-4	-30	133	103
G 도매소매업	40	111	101	80	71	-10	-21	61	40
H 운수창고업	33	76	86	75	43	10	-11	53	42
J 정보통신업	7	31	26	28	23	-5	2	19	21
(개인서비스업)	55	298	250	148	244	-48	-102	195	93
I 숙박음식점업	29	145	115	68	117	-30	-47	87	40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	10	76	76	47	67	0	-29	66	38
S 협회단체수리기타	15	72	56	31	56	-15	-25	41	16
T 가구내고용활동 등	1	5	3	1	4	-3	-1	1	-0
(사회서비스업)	320	800	692	387	480	-108	-306	372	67
O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52	141	141	69	89	0	-72	89	17
P 교육서비스업	200	340	239	144	140	-101	-95	40	-56
Q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68	319	307	169	250	-11	-138	239	101
U 국제 및 외국기관			5	5	0	5	1	5	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부표4〉 월별 총노동시간과 증감(단위: 백만시간)

	총노동시간(백만시간)				증감(전월대비, 백만시간)			증감(2-5월)		주40시간 환산취업 자수(천명)
	2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백만 시간	%	
전체	1,098	1,027	958	1,036	-71	-69	78	-62	-5.6	-1,548
남성	661	632	589	632	-29	-43	44	-29	-4.4	-723
여성	436	395	369	404	-41	-26	34	-32	-7.4	-804
(15-64세)	1,008	949	882	952	-59	-67	69	-57	-5.6	-1,413
15-29세	149	138	127	137	-11	-12	10	-12	-8.1	-303
30-39세	230	217	199	214	-13	-18	15	-16	-6.9	-399
40-49세	271	257	238	257	-14	-19	19	-14	-5.3	-356
50-59세	269	253	237	255	-16	-16	18	-13	-4.9	-331
60세이상	182	162	158	172	-20	-4	14	-10	-5.5	-250
(노동자)	811	764	696	759	-47	-68	63	-52	-6.5	-1,310
상용	613	595	540	590	-18	-55	50	-23	-3.7	-574
임시	154	129	121	132	-25	-8	11	-22	-14.1	-543
일용	42	39	35	37	-3	-4	3	-5	-11.6	-122
(비임금근로자)	285	264	262	277	-21	-2	15	-9	-3.0	-214
고용주	72	64	63	65	-8	-1	3	-6	-8.7	-155
자영업자	167	155	156	167	-12	1	11	-0	-0.2	-8
무급가족 종사자	46	45	43	44	-1	-1	1	-2	-3.9	-45
1 관리자	16	16	15	16	0	-1	1	0	2.4	10
2 전문가	218	200	184	207	-18	-16	22	-12	-5.3	-289
3 사무직	190	184	165	180	-6	-19	16	-10	-5.0	-238
4 서비스직	134	117	114	121	-17	-3	7	-13	-10.0	-335
5 판매직	127	118	115	122	-9	-3	7	-5	-4.2	-133
6 농림어업 숙련 종사 자	41	50	48	52	9	-1	4	11	27.7	284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100	96	87	91	-4	-9	4	-9	-8.8	-221
8 장치,기계조작 및 조 립	134	127	117	124	-7	-9	7	-10	-7.1	-239
9 단순노무 종사자	133	121	113	122	-13	-8	10	-11	-8.2	-2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주: 주당 총노동시간=계절조정 취업자수 × 주당노동시간

〈부표4〉 월별 총노동시간과 증감(계속, 단위: 백만시간)

	총노동시간(백만시간)				증감(전월대비, 백만시간)			증감(2-5월)		주40시간 환산취업 자수(천명)
	2월	3월	4월	5월	3월	4월	5월	백만시간	%	
전체	1,098	1,027	958	1,036	-71	-69	78	-62	-5.6	-1,548
A 농림어업	43	52	50	54	9	-1	4	12	27.1	289
B 광업	1	1	1	1	0	0	0	-0	-6.8	-1
C 제조업	190	186	168	180	-5	-18	12	-11	-5.7	-270
D 전기가스증기공기	3	3	2	3	0	0	1	-0	-5.4	-4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	6	6	6	6	0	0	0	0	0.8	1
F 건설업	79	76	69	74	-3	-7	5	-5	-6.3	-124
(생산자서비스업)	159	150	136	148	-9	-15	12	-11	-7.0	-279
K 금융보험업	32	30	27	30	-2	-3	3	-1	-4.3	-34
L 부동산업	24	22	21	22	-2	-2	1	-2	-9.2	-55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9	46	41	45	-3	-5	5	-3	-7.0	-85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54	52	47	50	-2	-5	3	-4	-7.7	-104
(유통서비스업)	255	240	228	242	-15	-12	14	-13	-5.2	-331
G 도매소매업	153	145	139	146	-8	-5	6	-7	-4.6	-175
H 운수창고업	67	62	58	61	-5	-4	3	-6	-8.3	-140
J 정보통신업	35	33	30	34	-2	-3	4	-1	-1.8	-16
(개인서비스업)	176	155	148	159	-22	-7	11	-17	-9.9	-436
I 숙박음식점업	101	89	85	91	-13	-3	5	-11	-10.4	-264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	20	16	15	18	-4	0	3	-2	-9.2	-46
S 협회단체수리기타	52	48	44	47	-5	-4	3	-5	-9.7	-127
T 가구내고용활동 등	3	3	3	3	0	0	0	0	3.6	3
(사회서비스업)	181	161	152	172	-21	-9	20	-10	-5.3	-241
O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41	37	34	37	-4	-3	3	-4	-8.9	-91
P 교육서비스업	56	49	47	57	-7	-1	10	1	1.7	24
Q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84	75	70	77	-9	-5	7	-7	-8.6	-181
U 국제 및 외국기관	1	1	1	1	0	0	0	-0	-18.7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계산